



꽃사슴에겐 청와대 들이 밥상 12일 청와대에서 꽃사슴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2008년 5월 서울대공원에서 이사 온 이 꽃사슴들은 경내에 방사돼 번식해 왔다. 안성식 기자

한·미 FTA 비준안도 번역 오류 김종훈 “철회 후 수정해 재상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철회될 전망이다. 번역 오류 때문이다. 김종훈(사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한·미 FTA 협정문 한글본에도 번역 오류가 있느냐”는 남경필 위원장의 질문에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위원장이 “번역 오류가 있다면 이미 외통위를 통과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선제적으로 자진 철회해 수정한 뒤 다시 제출하는 게 어떠냐”고 묻자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2008년 12월 여야 간 몸싸움 끝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를 통과했다. 김 본부장은 “지금 한·미 FTA 번역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면서 “검토작업이 끝난 뒤 전반적으로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 FTA 비



준동의안을 철회할 경우 비준안 원안은 폐지되고 추가 협상문이 포함된 병합안을 다시 상정해야 한다.

한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제안 설명을 통해 “최선을 다한 검토작업에도 몇 군데 오류가 발견돼 송구스럽다.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최근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에 대해 재검토 작업을 벌여 번역 오류를 207곳 수정한 뒤 국회에 다시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11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다시 제출한 한글본에도 번역 오류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한·EU FTA 비준안은 12일 국회에 재상정됐다.

임미진 기자 mijin@joongang.co.kr

최틀러 군기잡기 ... 의원 7명, 160분 난타

(최중경 지경부 장관)

홀로 출석시켜 국회불참 따져

12일 오후 2시. 26석의 국회 본회의장 국무위원석은 최중경(사진) 지식경제부 장관이 홀로 지키고 있었다. 국제회의의 참석을 이유로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한 최 장관 한 명을 상대로 “이례적인” 긴급현안질의가 열렸기 때문이다. 최 장관은 국무위원 답변석 마이

크 앞에 서서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최 장관의 국회 불출석 문제를 따지기 시작했다. 특히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10분의 질의시간 중 7분 이상을 최 장관의 출석 문제에 할애했다. 노 의원은 “국회가 최 장관 한 명을 상대로 본회의를 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 장관은

히틀러의 합성어)라는 별명을 아느냐. 혹시 즐기시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노 의원이 “장관이 참석한 국제 회의에는 총 23개국이 참가했는데, 장관은 11명뿐이고 나머지는 차관이 참석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최 장관은 “국회를 무시한 적 없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몸을 낮췄다. 그러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구”라며 “각별히 주의하라”고 했다. 최 장관은 “네”라고 짧게 답변했다.

2시간40분 동안 이어진 질의에서 최 장관은 줄곧 선 채로 의원들의 질문 공세를 받아야 했다.

최 장관은 이날 긴급현안질의에서 “정부 액션플랜에 따르면 두바이 유류 기준으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가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 하도록 되어 있다”며 “추이를 보면서 필요하다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정유 3사의 기름값 인하와 관련 해선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 (재고가 소진되면 주유소) 가격 할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 “한반도에 방사능이 오는 문제는 국민 생활 안전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기현 기자 emckk@joongang.co.kr

“이집트·리비아 권력 붕괴 보니 변화 움직임은 아무도 못 막아”

MB, 북한 염두에 둔 발언

이명박(얼굴) 대통령은 12일 “무엇을 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권력들이 시대에 따라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변화의 움직임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말했다.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현정회(회장 양정규) 회원 240여 명과 함께 한 청와대 오찬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나 리비아나 대를 이어서 권력 잡고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었지만 때가 되니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북한이라고 못 박진 않았으나 북한의 급변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뉘앙스였다.



니냐고 하는데, 나는 남북 관계는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은 그 이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돼 북에서 날아오는 공문을 보니 (초기에는 북한이 우리 측에 보낼 몇 시에 나오라고 했다. 뭐 때문에 나오라고 하는지 (북한에선) 누가 나오는지 안 밝혔다. 이제는 ‘며칠 몇 시에 이런이런 의제로 면담하고자 하니 귀족의 협조를 바랍니다’”고 한다. (북한이) 대단히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고정애 기자 ockham@joongang.co.kr



여야 “국회 무시하는 거냐” 최 장관 “설명이 부족했다”

“유가 배럴당 130달러 댄 유류세 내리기로 돼 있어”

(지난 1월) 임명된 이후 한 번도 (국회에) 출석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그 사이 대정부 질문이 한 차례 있어 참석했다”고 대꾸했다. 그러자 의원석에선 “2월에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갔어” “대답 똑바로 해”라고 고함이나 반말로 터져 나왔다. 그래도 최 장관은 동요하지 않았다. 노 의원이 “최틀러(최 장관과

면서 “중요한 국제회의에 참석할 때 양해해 주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라며 섭섭해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여당에서도 최 장관의 불출석을 문제 삼았다.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후쿠시마 일본 원전 때문에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데 주무장관이 자리를 비우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hi-pass **세상에 녹색을 더 하다**

(도공 공고 제2011-0024호)

한국도로공사 사장 공모

Global Smart Way비전을 실현해 나갈 한국도로공사의 최고 경영자를 모십니다.

- 공모직위 및 인원 : 한국도로공사 사장 1명
- 자격요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분으로
 - 대규모 조직관리 경험 및 비전 제시 능력을 갖춘 분
 - 최고경영자로서의 결단력, 리더십 및 위기관리 능력을 갖춘 분
 - 도로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능력을 갖춘 분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1부
 - 자기소개서(경력 및 업적중심 기재, A4용지 3매 이내)1부
 - 직무수행계획서(업무추진계획 및 방법, A4용지 5매 이내)1부
 - ※ 제출양식은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제출기한 : 2011. 4. 13(수) ~ 4. 25(월) 18:00(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제출장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430(금토동 293-1) 한국도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본관 4층 이사회회의실)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등기우편 제출(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평가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면접일시 및 장소는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심사기준 : 공사 홈페이지에 게재
- 기타
 -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임원추천위원회(☎02-2230-4403,4)로 문의하시거나 공사 홈페이지(www.ex.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11년 4월 13일

한국도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ex 한국도로공사 | 콜센터 1588-2504 www.ex.co.kr

세종대학교 유지법인 대양학원장 인사말씀

2011년 4월 13일

분향위원장 대양학원 이사장 최동호
유가족 대표 대양학원 명예이사장 주명건

세종대학교 총장 박우희
세종사이버대학교 총장 김지철
서울세종고등학교 교장 황영남
세종초등학교 교장 정의순

(주)세종투자가개발 대표이사 최승구
(주)세종호텔 대표이사 박재성
(주)한국관광상품센터 대표이사 성기용
(주)세종서적 대표이사 이명식
(주)KF 대표이사 허형권

세종대학교 유지법인 대양학원 설립자이신
故 대양 주영하(朱永夏)박사님 상사시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정중한 조의를
표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